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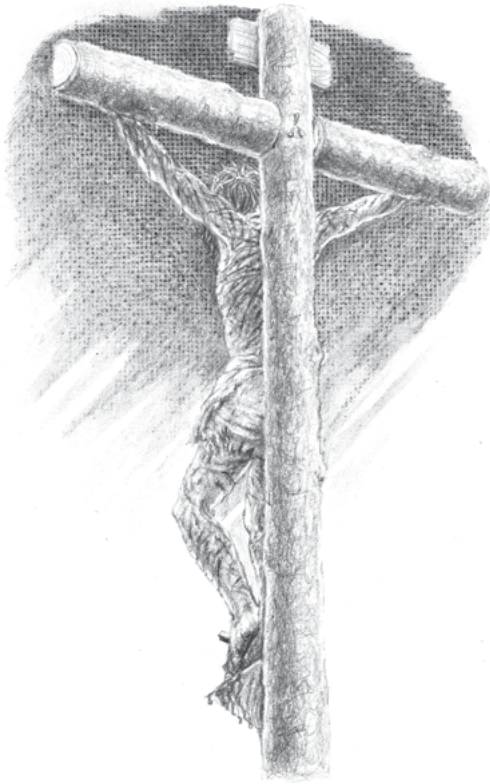
# 37

##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 53장, 요 19장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7장 (십자가의 길)



1.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안다.
2.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가 은 우리의 을 인함이요 그가 은 우리의 을 인함이라 그가 를 받음으로 우리가 를 누리고 그가 에 맞음으로 우리가 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 을 이해하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본받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참 아들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마귀의 꾀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국가 대표가 한 나라를 대표하여 경기에 출전했다가 패했을 때에 그 패배의 영향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둘째 아담, 두 번째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써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이자 동시에 최고의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2)

Not with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with His own blood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He 9:12)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영원한 속죄란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사 53:4~6)?

②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 봅시다(요 19:30, 히 1:3, 9:12).





을 삶에 적용하기

###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1

롬 4:24

---



---



---



---



---



---



---



---

2

롬 4:25

---



---



---



---



---



---



---



---

3

롬 5:6

---



---



---



---



---



---



---



---

↑

롬 5:8

---

---

---

---

---

---

---

---

↓

롬 5:18

---

---

---

---

---

---

---

---

↓

롬 5:19

---

---

---

---

---

---

---

---

↓

히 1:3

---

---

---

---

---

---

---

---



## 새끼를 위해 죽은 암탉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농부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그 닭장 등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툭 건드렸더니 암탉은 죽어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가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 저 암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자랑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7)



질문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또 많은 음식들이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고전 10:25~29)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우상의 제물인지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중에 누군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그 자체는 음식일 뿐이지만 그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이나 다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우상의 제물인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자유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함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거듭난 사람이든지 제사음식을 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거나, 또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거리가 끼는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